
부안 계화도 산상유적 재검토

양성혁 · 김왕국*

목 차

- I. 머리말
 - II. 발견 경위
 - III. 유적 환경
 - 1. 유적 위치 및 자연 지리적 환경
 - 2. 계화도 주변 신석기시대 유적
 - IV. 계화도 산상유적 출토 유물
 - 1. 토기
 - 2. 석기
 - V. 유적 성격에 대한 재검토
 - VI. 맺음말
-

* 국립전주박물관

국문요약

부산 계화도 유적은 故 전영래 선생에 의해 소개된 유적으로, 신석기시대 다른 유적과는 달리 산 정상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출토된 토기는 신석기시대 중서부지역의 단사선문계 구분계토기와 남해안지역 전기를 대표하는 영선동식토기이다. 영선동식토기는 당시에는 서해안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석기 중 옥부와 전면마연 장방형석부 역시 당시 출토예가 많지 않았다. 발표 당시 고고학적 지식의 한계로 유적과 유물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화도 산상유적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계화도 산상유적에 대한 현지답사를 하고 새롭게 유물을 실측하여 유적과 유물을 재보고하였다.

처음 소개 당시 이미 유적이 훼손되어 유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었다. 이에 새롭게 현지답사를 한 결과, 유적이 있었던 계화산 정상에는 조선시대 봉수시설이 복원되어 있었으나, 주위에는 돌과 풀이 무성하여 지표상에서는 별다른 유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계화도 산상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이른바 영선동식토기로 불리는 것으로 남해안지역 전기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석기는 석부 중심인데, 옥질의 석재를 정밀 마연한 옥부와 장방형석부가 주목된다. 이 석기는 비실용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화도 산상유적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산 정상 혹은 능선의 평탄면에 조성된 신석기시대 유적인 부산 다대동 유적, 용호동 유적, 인천 시도 유적, 영종도 능들 유적, 울진 후포리 유적의 입지와 출토 유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이 유적들이 신석기시대 의례 행위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Ⅰ 주제어 Ⅰ

계화도, 산상유적, 옥부, 전면마연 장방형석부, 의례 행위

I. 머리말

국립전주박물관은 전북 부안군 계화도에서 수습된 신석기시대 토기와 석기 30점을 소장하고 있다. 이 유물은 전주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1990년 국립전주박물관 개관과 함께 관리 전환되어 소장하게 된 것이다. 유물에 대한 수습 경위와 내용은 당시 전주시립박물관장이었던 故 전영래 선생에 의해 소개되었다(전영래 1979).

계화도 유적은 신석기시대 다른 유적과는 달리 산 정상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출토된 토기는 신석기시대 중서부지역의 단사선문계 구분계토기와 남해안지역 전기를 대표하는 영선동식토기이다. 영선동식토기는 당시에는 서해안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함께 출토된 석기 중 옥부와 전면마연 장방형석부 역시 당시 출토예가 많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유적의 입지나 출토 유물의 특성상 중요성이 인정되었지만, 그 실체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¹⁾ 아마 보고서가 지역에서 출판되었다는 한계로 생각되지만, 보고서 원본을 구하기 힘들어 유적과 유물의 1차적 접근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따름이다.

필자가 국립전주박물관으로 부임한 후, 박물관 소장 신석기시대 유물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던 중 계화도 유물을 실견하게 되었고, 당시 보고서를 찾아보게 되었다. 다행히 국립전주박물관은 전주시립박물관의 자료를 관리 전환한 덕에 계화도 유적의 보고서가 자료실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출판 기술의 한계로 도면이나 사진을 현 시점에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또한 당시 고고학적 지식의 한계로 유적과 유물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 물론 故 전영래 선생이 탁월한 식견으로 석기 등을 시베리아 신석기문화와 비교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에 계화도 산상유적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느껴 재보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새롭게 유물을 실측하고 현지를 실제 답사하였다.

먼저 유물의 발견 경위를 소개하고(II장), 유적이 입지한 계화도의 자연 지리적 환경과 주변 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III장). 이후 새롭게 작성한 유물의 도면 및 사진과 함께 유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IV장). 마지막으로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적 성격에 대해 재검토 하겠다(V장). 전반적인 내용은 양성혁이 작성하였고, 유물의 설명은 김왕국이, 사진촬영과 실측은 김왕국, 정지섭이 담당하였다.

1) 현재 국립전주박물관 상설전시실에도 전시되고 있지 않다. 다만 2010년 군산대학교박물관 특별전 『새만금展』에 출품된 적이 있다.

II. 발견 경위

계화도 신석기시대 산상유적은 故 전영래 선생이 전주시립박물관장으로 재직 중이던 1979년 1월 부안군 계화리 거주 김봉수(당시 28세) 씨가 석부 3점을 신고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선생의 보고(1979)에 따르면 신고자와 같은 마을에 사는 학생들이 계화산 정상에서 칩뿌리를 캐다가 해당 유물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당시 선생은 신고자에게 현장 보존을 당부하였으나, 며칠 후 김영길이란 학생이 석기류와 토기류를 다수 들고 방문하였다고 한다. 이에 선생은 마침 박물관을 방문하였던 일본 게이오대학교(慶應大學校) 고고학연구실의 에사카 테루야(江坂輝彌) 교수와 그해 4월 현지를 답사하였다.

선생의 보고에 따르면, 섬 중앙의 계화산 정상에는 원래 조선시대 연변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마을 교회 청년들이 봉수시설의 일부 석축을 헐고 시멘트로 된 십자가를 세웠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유물포함층이 교란된 것으로 보았다. 유물은 봉수대 동쪽에서 확인되었는데, 선생의 답사 당시에도 표토층을 제거하니 석부와 토기편 일부가 확인되어 수습하였다고 한다.

2018년 9월 27일 현지 조사와 드론을 이용한 현장 촬영을 위해 유적을 찾았다. 현재 계화산 정상에는 조선시대 봉수대가 새롭게 정비·복원되어 있으며, 선생의 보고 당시 시멘트로 제작된 십자가는 철거되고 새롭게 산 정상 동쪽에 화강암으로 만든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다. 산 정상 전체가 평탄화 되어 있었으며, 봉수시설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정상부 전체에 깔려 있었다. 혹시 유물을 지표상에서 찾을 수 있을까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깔린 돌 위로 풀이 우거져 있어 확인되지 않았다. 봉수대를 복원하면서 유적에 대한 고고학 조사를 하였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봉수대 정비·복원 과정에서 유적의 훼손이 우려되었다. 또한 산 정상에는 등산로 안내판만 있을 뿐 복원된 봉수대에 대한 설명이나 신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도 없어 문화재에 대한 지자체의 안일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역시 계화도 산상유적이 학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다보니 일반인조차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사진 1. 양지마을에서 바라본 계화산 정상



사진 2. 계화산 정상의 봉수시설 및 십자가

Ⅲ. 유적 환경

1. 유적 위치 및 자연 지리적 환경

유적이 위치한 계화도는 원래 동진강 하구 남안에 위치한 서해상의 조그마한 섬이었다. 현재는 간척 사업으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만, 간척 사업 전에는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섬이었다.²⁾ 육지와는 약 4km 가량 떨어져 있었으며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썰물 때에는 걸어서 육지로 나다닐 수 있었다고 한다. 섬의 남북 길이는 2.3km, 동서 길이는 1.5km, 해안선 길이는 약 7km이고 면적은 약 2.5km²이다. 섬 중앙에는 해발 246.3m의 매봉을 최고봉으로 하는 계화산이 있으며, 유적은 산 정상부에 위치한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이재연 2017).

계화도의 육지화는 일제강점기부터 시도되었다. 1944년 일본인에 의해 계화도와 육지를 잇는 방조제가 축조되어 농경지화 작업이 착공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에 따른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부진하다가 1945년 광복과 함께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1963~68년 간 계화도와 부안군 동진면을 잇는 방조제가 축조되면서 완전히 육지화 되었다. 간척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행정 구역상으로 부안군 행안면 계화리였으나, 1983년 부안군 계화면으로 개편되었다.

2) 북으로는 군산, 남으로는 변산반도, 동으로는 김제, 서로는 선유도를 비롯한 서해의 여러 섬들을 조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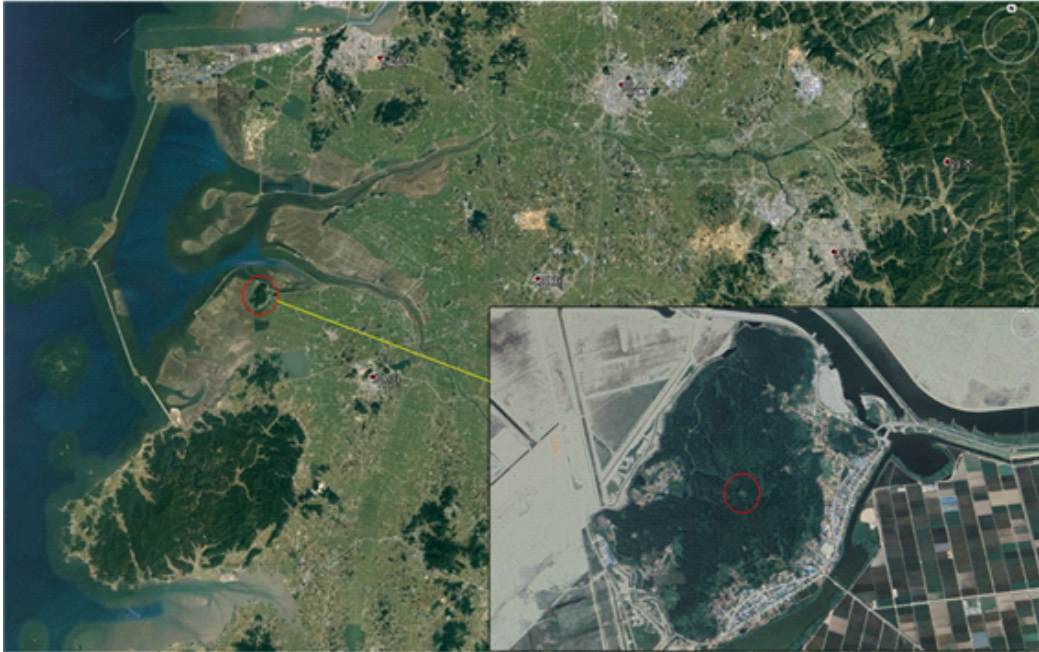


사진 3. 하늘에서 본 유적 전경(출처: Google Earth Pro)



사진 4. 유적에서 본 주변 모습(① 군산 방면, ② 변산반도 방면, ③ 김제 방면, ④ 선유도 방면)

현재 산 정상부에는 1995년에 복원한 봉수시설이 있다. 계화도의 봉수시설은 조선시대 연변봉수의 하나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계화도 봉수는 북쪽으로 만경현 길관 봉수에 응하고 남쪽으로 점방산에 응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계화도 사람들은 계화산을 봉화산(烽火山)이라고도 부른다(국토지리정보원 2010). 1979년 유적보고에 따르면 당시에는 봉수시설이 허물어져 있었다고 한다(전영래 1979). 현재의 봉수시설은 지름 약 5.7m의 원형으로 1995년에 복원한 것이다.



그림 1. 광여도(廣輿圖)의 계화산 일대



사진 5. 복원된 계화산 봉수 모습

앞서 언급했듯이 신석기시대 산상유적은 산 정상의 봉수시설 동쪽에 위치하며, 지표 아래 30cm 가량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고 전해진다(전영래 1979). 이곳은 범위가 33×32m 정도 되는 비교적 좁은 편평대지이다. 현재 산 정상부 중앙에는 복원된 봉수시설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동쪽 정상부 평탄면 끝에 2000년 마을 주민들이 새로 세운 화강암제 십자가가 간척지를 바라보고 서 있다. 또한 정상부에는 봉수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널려 있으며, 그 위로 풀이 우거져 있어 유구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진 6. 하늘에서 본 유적 전경



사진 7. 봉수시설 주변 모습

한편 계화도에는 대한제국 시기 나라가 어려워지자 전통적 도학의 중흥만이 국권 회복의 길이라 여겨 후학 양성에 매진했던 간재(艮齋) 전우(田愚, 1841-1922)의 유지(遺址)가 있다. 1912년 계화도에 정착한 전우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화도에 머물면서 저술과 제자 양성에 힘썼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계화도 북쪽의 양지마을에 전우의 유지가 정비되어 그의 사상과 뜻을 전하고 있다.



사진 8. 계화산 정상의 십자가 모습



사진 9. 간재 전우 유지

2. 계화도 주변 신석기시대 유적

본 유적이 처음 소개될 당시만 해도 계화도가 위치한 전북 해안지역(군산·김제·부안·고창)에는 대항리 패총유적(최몽룡 1967, 1972)과 선유도 패총유적(김원룡 1973)을 제외하고는 신석기시대 유적은 거의 알려진 바 없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에

는 47개소의 신석기시대 유적이 산포하고 있다(천선행·정다운 2017). 일부 유적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섬에 위치한 패총유적이다. 이 유적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고학 조사가 미진한 편으로, 군장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고고학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들이다. 이러한 한계로 이 지역 신석기시대 문화상은 아직 분명치 않다. 다만 고고학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노래섬, 가도, 띠섬, 비응도 등의 신석기시대 패총유적에서 확인된 유구와 유물로 볼 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유적이라기보다는 자원 획득을 위해 일시적 방문이 이루어졌던 한정 행위 장소로서의 성격이 강하다(임상택 1998; 김장석·양성혁 2001).

유적의 형성 시기는 유적별로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신석기시대 전기 말부터 후기까지 여러 시기에 걸쳐 형성되었다. 다만 일부 유적(노래섬 라지구 A패총, 가도 A패총 등)을 제외하면 중기 유적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즉 신석기시대 중기에 전북 해안지역의 유적이 급감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몇 가지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송은숙(1998)은 중기가 되면서 한랭화에 따른 농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내륙 지향적으로 바뀌었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이상균(1998)은 중기에 남해안지역과의 교류가 미진해지고 중서부지역 토기문화의 영향이 강해지면서 토기문화가 변하였다고 보았으며, 이영덕(2011)은 기후변화 결과 바다자원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남해안지역 토기문화 진출 자체가 미미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천선행과 정다운(2017)은 중기에 이 지역 유적의 감소가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것이라 추정하였다. 남해안지역의 내부 사정과 선택으로 이 지역으로의 진출 및 교류가 단절되면서 이 지역 사람들이 내륙 지향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즉 내륙 혹은 남해안으로 인구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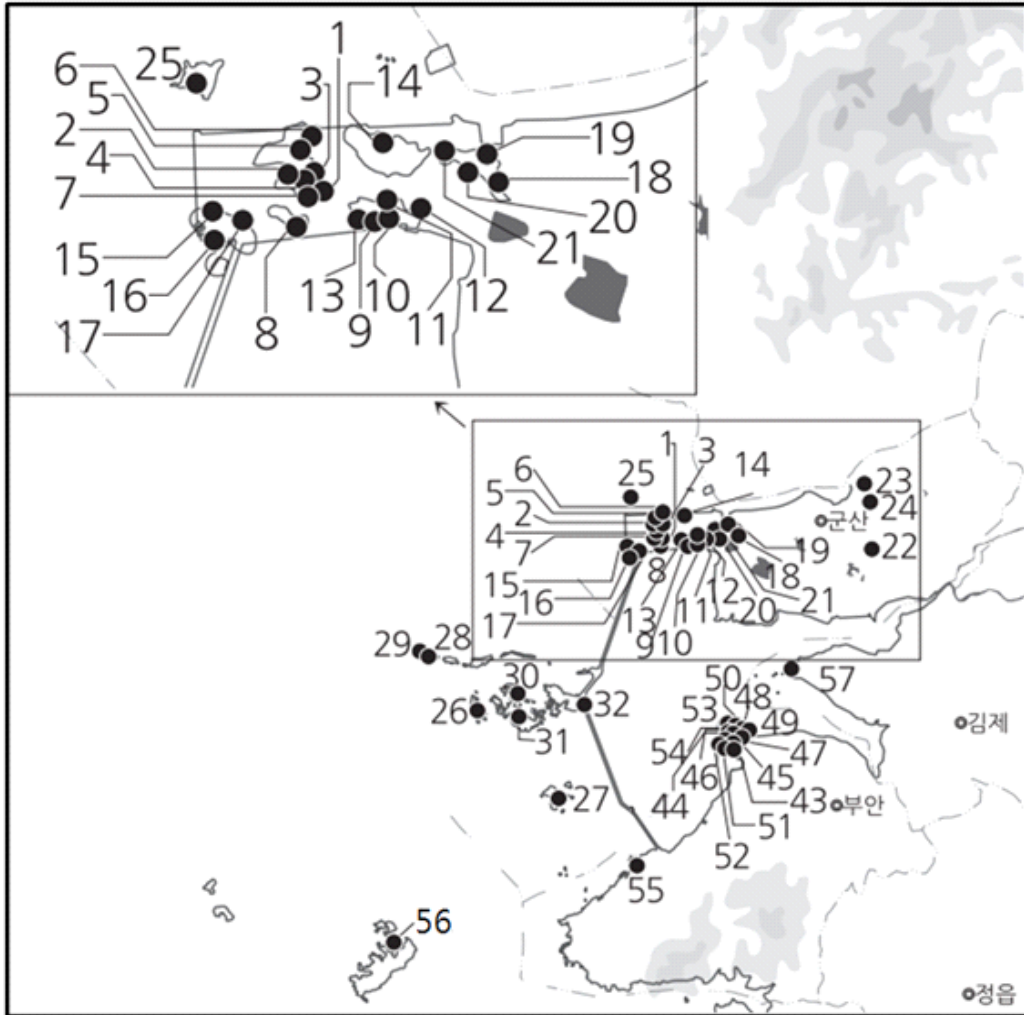


그림 2. 전북 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유적 분포도(천선행·정다운 2017, p.122 발췌)

이 지역 중기 유적의 급감 이유는 기후 변화이든 중서부지역 토기문화의 영향이든, 인구 감소로 인한 것이든 결국 남해안지역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지역 간 관계는 패총유적 출토 유물상에서 찾을 수 있다. 전기의 유적에서는 영선동식토기를 비롯해 단사집선문, 패각조흔문 등 남해안지역 전기 양식의 토기가 주를 이룬다. 이 밖에도 이음낚시 등 석재의 어로도구 역시 남해안지역의 양상을 띤다. 그러나 중기 이후에는 구분계토기, 동일계토기 등 중서부지역 토기문화가 확인된다. 후기에는 전반적으로 중서부지역의 토기문화 양상을 띠지만, 봉계리식토기와 이중구연토기 등 남해안지역의 토기양식이 보인다. 뒤에 언급되겠지만, 계화도 산상유적

에서 확인된 토기는 남해안지역 전기의 토기양식이다.

표 1. 전북 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유적 현황(천선행·정다운 2017, p.123 발췌)

연번	유적명	성격	연번	유적명	성격
1	노래섬 가	패총	25	개야도	패총
2	노래섬 나	패총	26	관리도	패총
3	노래섬 라 A	패총	27	덕산도	패총
4	노래섬 라 B	패총	28	말도 A	패총
5	노래섬 마 A	패총	29	말도 B	패총
6	노래섬 마 B	패총	30	선유도 A	패총
7	노래섬 바	패총	31	선유도 F	패총
8	띠섬 II B	패총	32	선유도 E	패총
9	가도 A	패총	43	계하 I	패총
10	가도 B	패총	44	계하 II	패총
11	가도 C	패총	45	계하 III	패총
12	가도 D	패총	46	계하 IV	패총
13	가도 E	패총	47	계하 V	패총
14	오식도 B	패총	48	계중 I	패총
15	비응도 A	패총	49	계중 II	패총
16	비응도 B	패총	50	계상	패총
17	비응도 C	패총	51	살금 I	패총
18	내초도 A	패총	52	살금 II	패총
19	내초도 B	패총	53	양지	패총
20	내초도 C	패총	54	계화도 산상	미상
21	내초도 D	패총	55	대항리	패총
22	개정동 A	산포지	56	위도 정금리 B	산포지
23	내흥동 II	포함층	57	심포리	패총
24	내흥동 III	포함층			

IV. 계화도 산상유적 출토 유물

1. 토기

채집된 토기는 모두 파편으로 특징적인 문양이 확인되는 것은 11개편이다. 이밖에도 원저의 저부편이 1점 있다. 문양은 단사선문(短斜線文), 조문(爪文), 압인어골문(押引魚骨文) 등이 있다. 구연부는 거의 직립하였으나 약간 외반된 경우가 있다. 대부분이 발형(鉢形) 또는 완형(盥形) 토기로 보인다. 문양이 확인되지 않은 작은 토기편을 고려할 때 시문은 전체 기면을 덮지 않고 구연부를 중심으로 주로 동체 상부에만 시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① 구연부편 (그림 3-①, 전주 519)

길이 0.8cm 내외의 단사선을 압날 방식으로 시문한 구연부의 일부이다. 현재 약 0.8cm의 간격을 두고 3행의 단사선문이 확인된다. 기벽 두께는 위쪽이 0.6cm, 아래쪽이 0.7cm이다. 태토는 적갈색 점토에 약간의 석영 사립이 섞여 있으며, 소성도는 단단한 편이다.

② 구연부편 (그림 3-②, 전주 519)

조문을 상하 이중으로 압날 시문하여 1조의 문양대를 형성한 구연부의 일부이다. 문양대는 약 0.4cm의 간격을 두어 4행으로 확인된다. 약간 내만한 구연에, 문양은 구연단 바로 아래부터 시작된다. 기벽 두께는 위쪽이 0.5cm, 아래쪽 절단면은 0.8cm이다. 적갈색 점토와 굵은 사질이 섞인 태토 표면은 명황갈색을 띤다.

③ 구연부편 (그림 3-③, 전주 519)

길이 0.4cm 내외의 조문을 약간의 간격을 두고 압날 방식으로 시문한 구연부의 일부이다. 직립 구연으로 문양은 구연단 바로 아래부터 시작해서 5행이 확인된다. 기벽 두께는 0.5cm로 얇은 편이다. 태토는 굵은 석영 사립이 섞여 있으며, 표면은 약간 붉은색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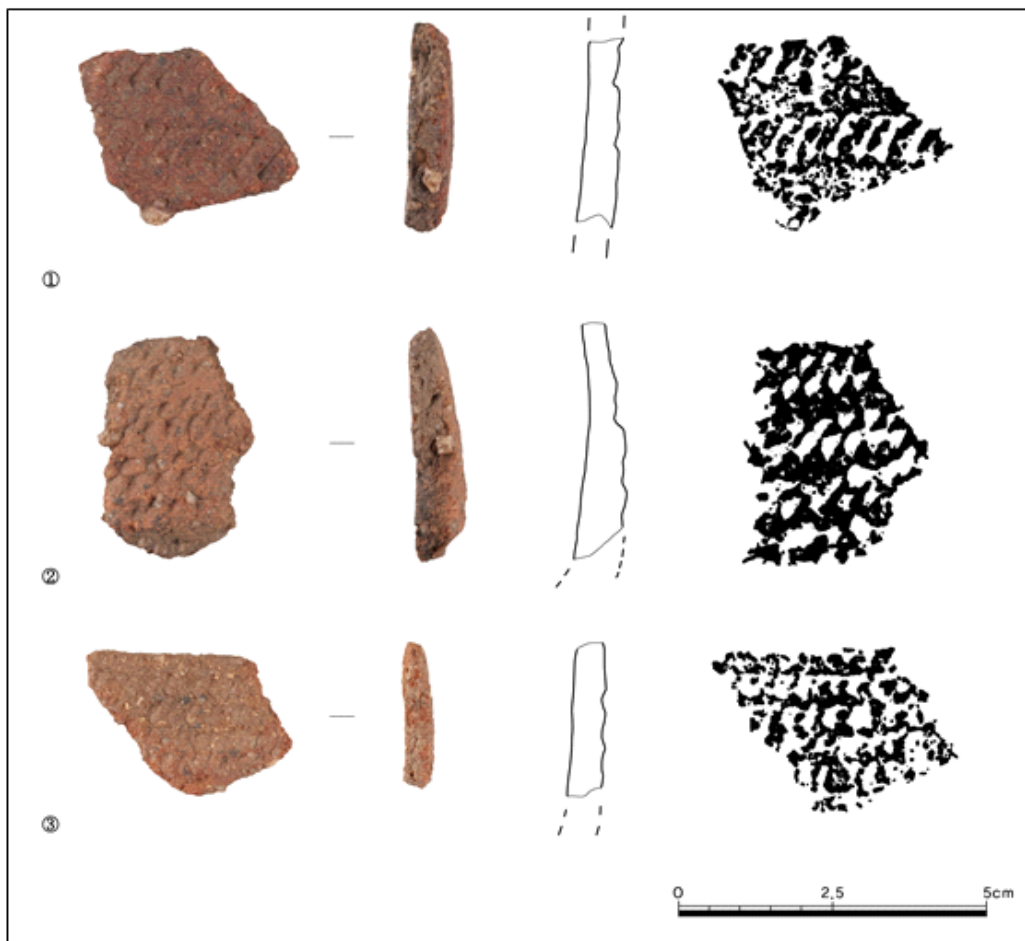


그림 3. 부안 계화도 유적 출토 토기 1

④ 동체부편 (그림 4-④, 전주 519)

토기 동체부로 상부에 ③ 구연부편과 형태가 유사한 조문이 압날 시문되어 있다. 문양대 아래에는 무문양이다. 태토, 기질, 기벽만곡도 등으로 미루어 보아 ③ 구연부편과 동일개체의 일부로 보인다. 즉 구연부 바로 아래부터 5~6행의 문양대를 두르고 그 밑으로는 시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⑤ 구연부편 (그림 4-⑤, 전주 519)

조문이 압날 시문된 구연부의 일부이다. 현재 5행의 조문이 확인되는데 그 형태가 ③ 구연부와 유사하다. 구연단은 유실되어 있다. 기벽 두께는 위쪽이 0.5cm, 아

래쪽이 0.8cm이다. 태토는 황토에 굵은 석영 사립을 섞은 암적갈색 흙으로, 기벽 표면은 황색을 띤다. 소성도가 낮아 박락이 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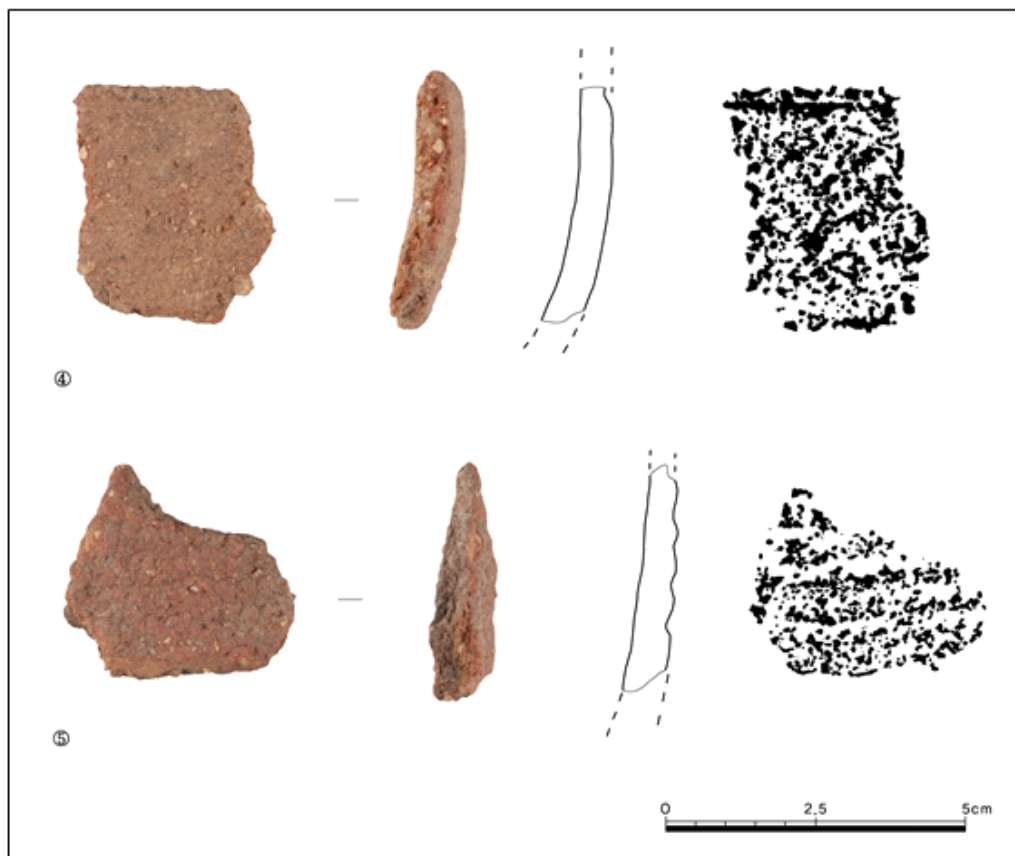


그림 4. 부안 계화도 유적 출토 토기 2

⑥ 구연부편 (그림 5-⑥, 전주 519)

조문이 압날 시문된 구연부의 일부이다. 현재 5행의 조문이 확인되는데, 구연부 바로 아래부터 문양이 시작된다. 위쪽의 두께는 0.7cm, 아래쪽은 0.9cm이다. 태토는 황갈색점토에 굵은 사립을 섞여 있다.

⑦ 구연부편 (그림 5-⑦, 전주 519)

압인어골문이 시문된 구연부의 일부이다. 끝이 둥근 시문구를 구연부 바로 아래부터 오른쪽, 왼쪽 아래 방향의 사선을 교대로 연속 시문하여 횡주어골문을 시문한

것이다. 기벽은 위쪽이 0.6cm이고, 아래쪽은 0.7cm이다. 일종의 완형 토기로, 전부 내벽을 외반시켜 두께를 얇게 하고 있다. 태토는 적갈색 점토에 석영 사립과 운모가 섞여 있다.

⑧ 구연부편 (그림 5-⑧, 전주519)

압인어골문이 시문된 구연부의 일부이다. 시문구를 좌우로 엇갈리게 사선을 교대로 시문하여 어골문을 만들고 있다. 외반 구연으로, 두께는 상부 0.5cm, 하부 0.7cm이다. 태토는 비교적 밝은 적갈색으로 사립과 운모가 섞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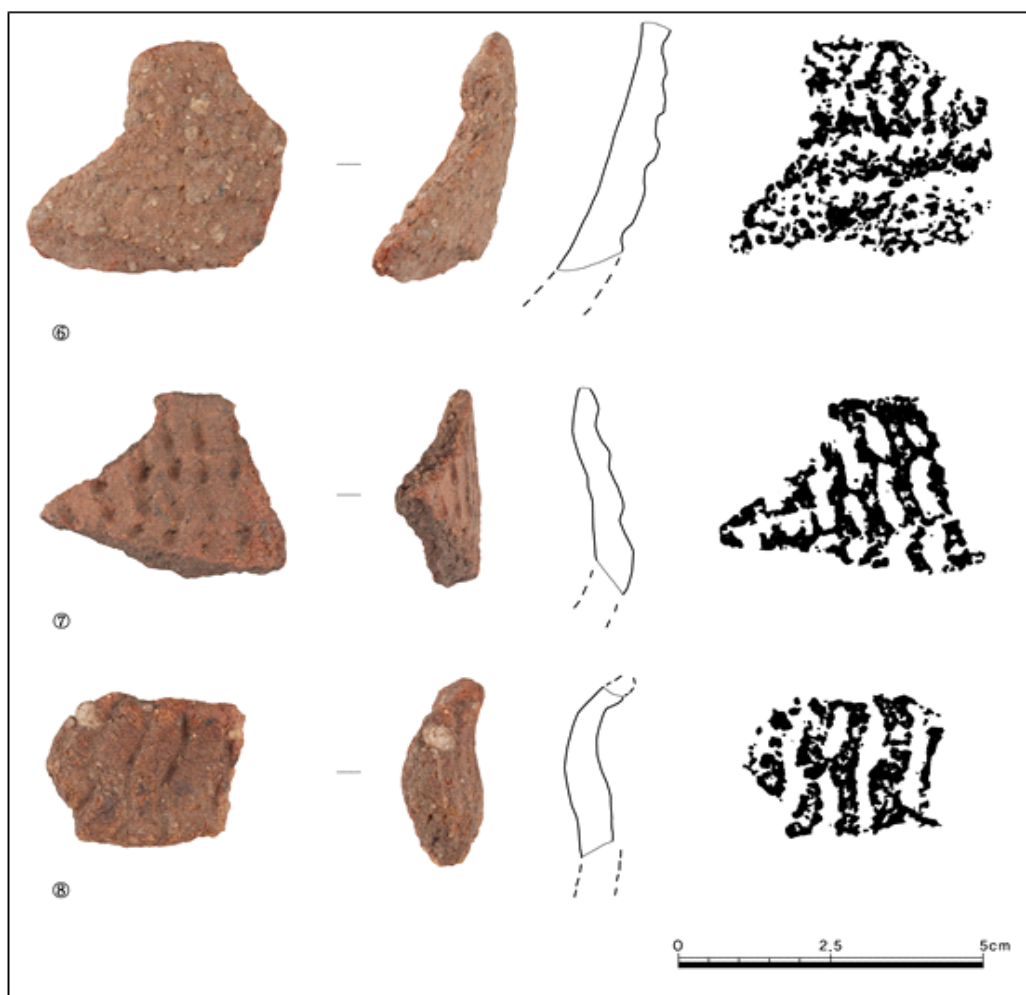


그림 5. 부안 계화도 유적 출토 토기 3

⑨ 동체부편 (그림 6-⑨, 전주 519)

압인어골문이 시문된 동체부의 일부이다. 끝이 둥근 시문구로 평행사선을 방향이 엇갈리게 그어 나갔다. 지그재그의 경사도는 매우 완만하다. 기벽 두께는 위쪽은 0.5cm, 아래쪽은 0.7cm이다. 황색점토에 사립을 섞은 태토로, 표면은 약간 적색을 띤다.

⑩ 구연부편 (그림 6-⑩, 전주 519)

압인어골문이 시문된 구연부의 일부이다. 직립한 구연 바로 아래부터 평행사선을 지그재그로 그어 내려갔다. 지그재그의 경사도는 매우 완만하여 파상문처럼 보인다. 기벽 두께는 0.6~0.7cm이고, 황색점토의 태토에 사립이 섞여 있으며, 표면은 적갈색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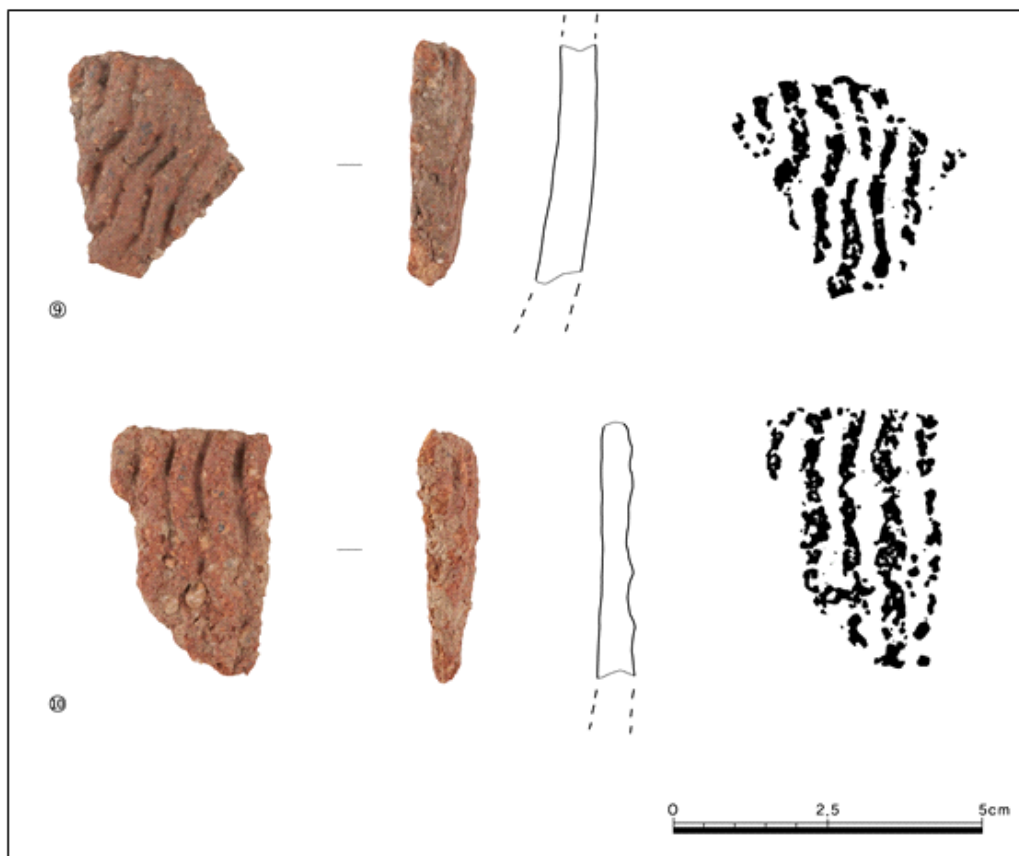


그림 6. 부안 계화도 유적 출토 토기 4

⑪ 구연부편 (그림 7-⑪, 전주 519)

압인어골문이 시문된 구연부의 일부이다. 구연단으로부터 3.2cm 가량의 간격을 두고 둥근 시문구를 이용해 평행사선문을 지그재그로 그어 어골문을 만들고 있다. 기벽 내면에는 패각조흔문이 남아 있다. 직립 구연으로 기벽의 두께는 0.7cm이다. 태토는 적갈색 점토에 석영 사립과 운모가 섞여 있다.

⑫ 저부편 (그림 7-⑫, 전주 519)

발형 토기의 저부편이다. 둥근 바닥에서 호를 그리며 올라가다가 직립에 가까운 부위에서 절단되었다. 기벽의 두께는 위 0.6cm, 아래 1.0cm이다. 태토는 점토 기반에 약간의 석영 사립이 섞여 있으며 소성도는 단단한 편이다. 외면은 무문양이지만 결실된 상부에는 문양대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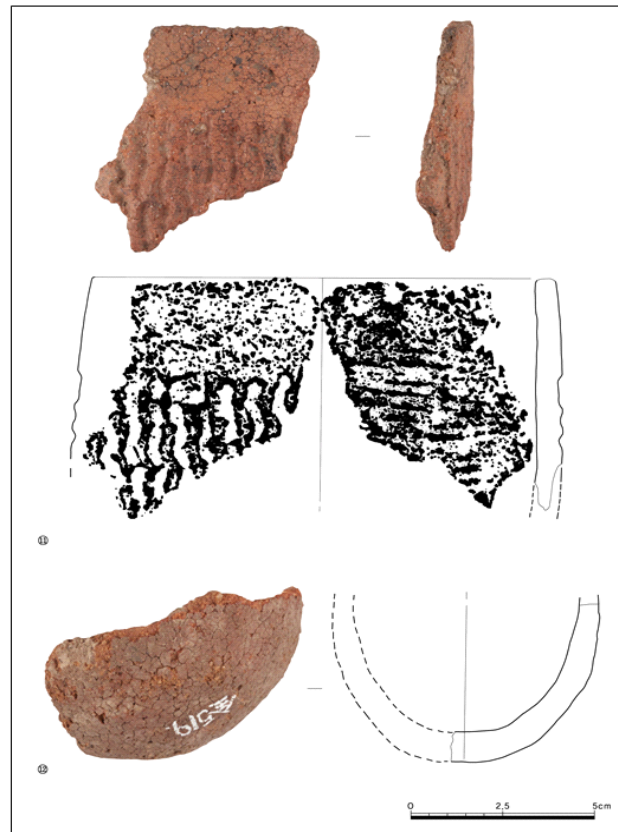


그림 7. 부안 계화도 유적 출토 토기 5

2. 석기류

故 전영래 선생의 원 보고서에 따르면 채집된 석기류는 총 20점이다(전영래 1979). 그러나 현재 국립전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계화도 산상유적 출토 석기는 18점이다. 원 보고서의 석영암제 박편인기(도 8-2, 도 8-3) 2점은 무슨 연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립전주박물관으로 관리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석기류는 박편인기 2점(그림 11-①⑥, 그림 11-①⑧)을 제외하고 계화도 주민인 김봉길氏와 김영수氏가 수습하여 신고한 것이다. 유물에 대해 관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³⁾

① 국부마제석부(局部磨製石斧) (그림 8-①, 전주 185)

석영편암을 떼어 타원형에 가깝게 양면을 마연하여 단면 ‘렌즈’형으로 성형한 양인석부이다. 인부(刃部)와 두부(頭部)는 활 모양으로 휘어 있다. 측면에 타격흔이 그대로 남아 있다.

전체 길이 7.8cm, 인부 너비 4.0cm, 두부 너비 4.5cm, 최대 너비 5.2cm, 최대 두께 1.8cm, 무게 129.5g

② 옥부(玉斧) (그림 8-②, 전주 186)

유백색의 규암계 석재 전면을 정밀하게 마연한 옥부이다. 두부는 역 U자형으로 둥글게 형성되었고, 인부는 양면을 마연하며 합인을 이루고 있다. 몸체는 거의 일자형이고 단면은 타원형이다.

전체 길이 6.0cm, 인부 너비 3.0cm, 최대 두께 1.4cm, 무게 49.1g

③ 비상옥기(匕狀玉器) (그림 8-③, 전주 187)

유백색의 투각섬석편암을 동물이빨 모양으로 정밀 마연한 옥기이다. 두부에 마연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미완성품일 가능성이 있다. 단면은 타원형에 가까운 육각형이다.

전체 길이 5.0cm, 두부 너비 1.0cm, 최대 너비 2.3cm, 최대 두께 1.2cm, 무게 20.8g

④ 옥부 (그림 7-④, 전주 189)

유백색의 규암계 석재 양면을 정밀하게 마연한 옥부이다. 인부는 직인을 형성하

3) 석질은 원 보고서의 내용을 따랐다.

고 있다. 두부는 마연을 하지 않았다. 단면은 방형에 가깝다.

전체 길이 5.4cm, 인부 너비 2.8cm, 최대 두께 2.3cm, 무게 79.5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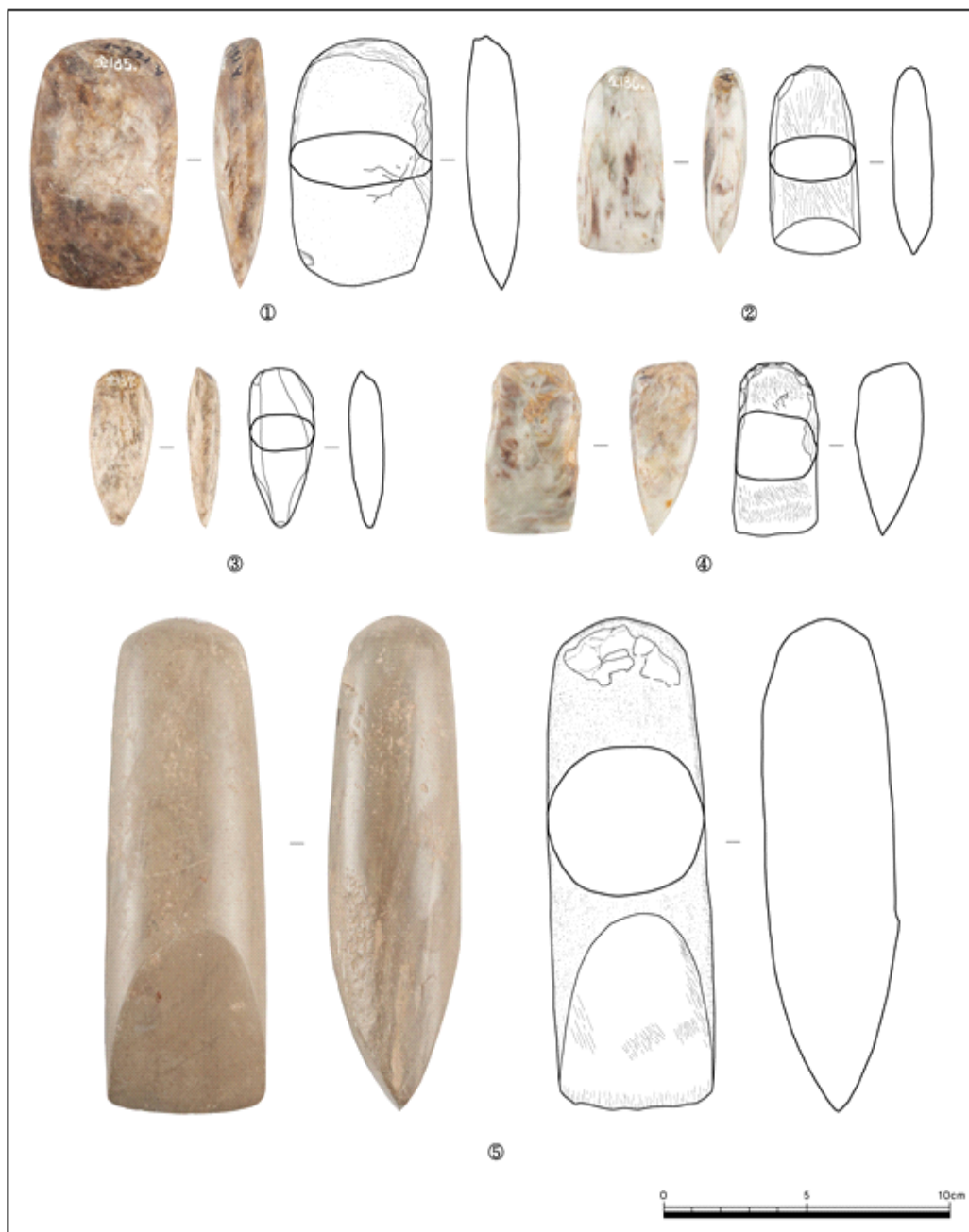


그림 8. 부안 계화도 유적 출토 석기 1

⑤ 전면마연 장방형석부(全面磨研 長方形石斧) (그림 8-⑤, 전주 188)

옥질의 석재 전체를 원통형으로 정밀 마연하여 합인의 날을 세운 장방형석부이다. 단면은 원형에 가깝고 몸체는 일자형이다. 두부의 일부가 결실되어 있다.

전체 길이 15.3cm, 인부 너비 5.3cm, 최대 두께 5.5cm, 무게 760.3g

⑥ 국부마제석부 (그림 9-⑥, 전주 190)

황회색 석영편암을 장방형으로 떼어 인부만 양면에서 마연하여 둥근 날을 세운 국부마제석부이다. 단면은 타원형이다. 박리된 측면은 마연 성형 등 가공하지 않았다.

전체 길이 10.7cm, 인부 너비 4.2cm, 두부 너비 3.2cm, 최대 두께 2.1cm, 무게 230.6g

⑦ 국부마제석부 (그림 9-⑦, 전주 193)

각섬석편암을 타원형으로 떼어내 인부만 양면에서 마연하여 날을 세운 국부마제석부이다. 단면은 타원형이다.

전체 길이 7.2cm, 인부 너비 2.5cm, 최대 너비 3.7cm, 무게 79.5g

⑧ 국부마제석부 (그림 9-⑧, 전주 192)

흑색의 각섬석편암을 장방형으로 떼어내 양면에서 인부를 마연한 국부마제석부이다. 단면은 타원형이다. 인부를 제외한 측면에 타격흔이 그대로 남아 있다.

전체 길이 8.0cm, 인부 너비 3.0cm, 최대 너비 4.7cm, 최대 두께 1.6cm, 무게 112.4g

⑨ 국부마제석부 (그림 9-⑨, 전주 191)

운모편암을 방형으로 떼어서 양면을 마연하여 날을 세운 국부마제석부이다. 단면은 타원형이다. 두부와 몸체 측면에 타격흔이 남아 있다.

전체 길이 6.6cm, 인부 너비 4.5cm, 두부 너비 4.7cm, 최대 두께 1.5cm, 무게 90.2g

⑩ 석착형석기(石鑿形石器) (그림 9-⑩, 전주 194)

운모편암을 세장방형으로 떼어내 한쪽 면만 날을 세운 석착형석기로 추정된다. 그러나 인부가 결실되어 그 원형을 알 수 없다. 단면은 장방형에 가깝다. 남아 있는 상면이 마연된 흔적으로 보아 지석(砥石)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현존 길이 11.7cm, 너비 3.3cm, 두께 2.3cm, 무게 161.3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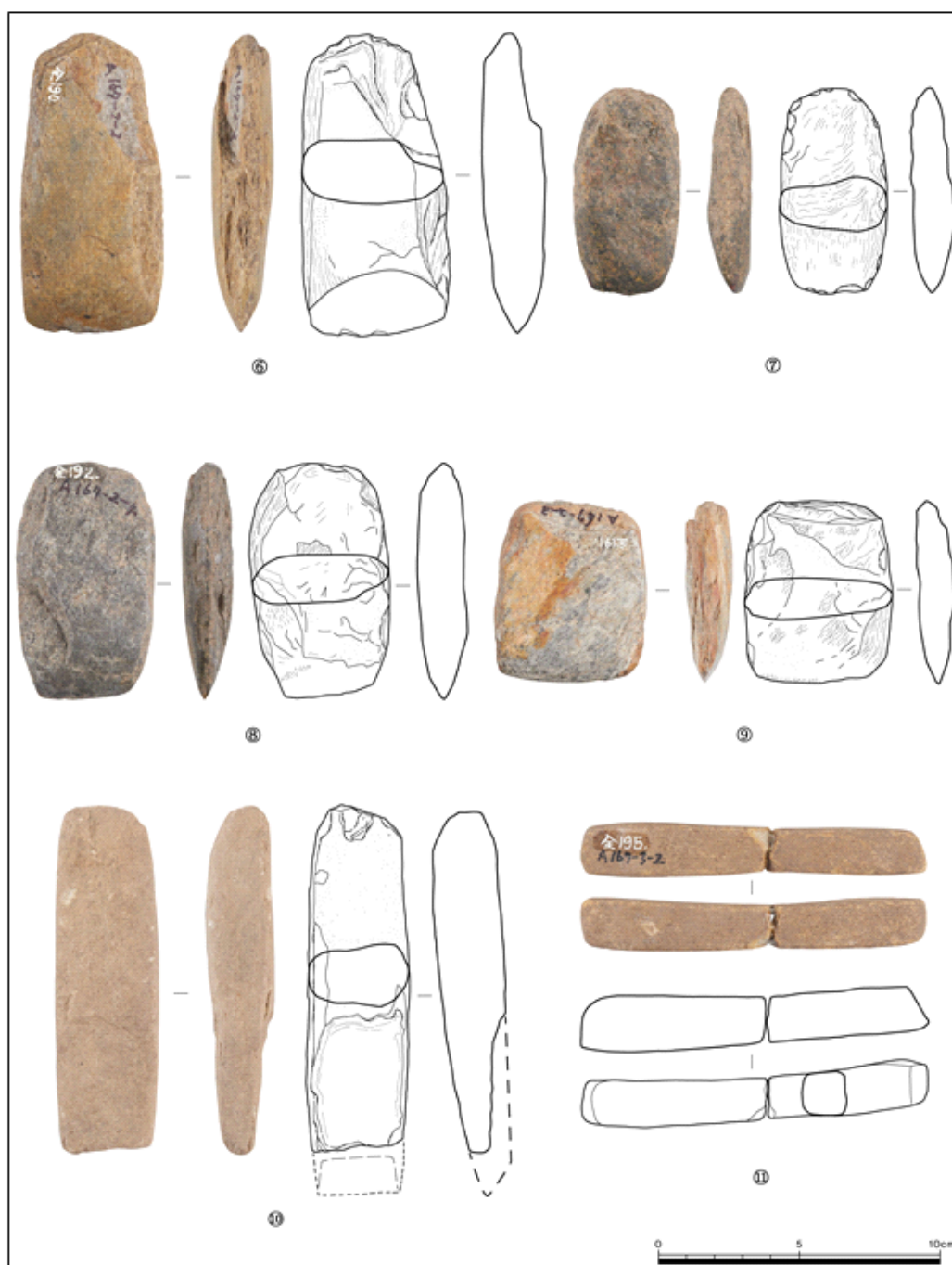


그림 9. 부안 계화도 유적 출토 석기 2

⑪ 지석(砥石) (그림 9-⑪, 전주 195)

흑회색의 사암을 장방형으로 떼어내 4면을 사용한 지석이다. 단면은 방형이다. 도구를 갈아서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전체 길이 12.0cm, 중앙 너비 1.4cm, 두께 1.5~1.9cm, 무게 71.6g

⑫ 석재(石材) (그림 10-⑫, 전주 196)

편구형의 자연석이다. 석질은 화강반암질이다. 단면은 장타원형이며 표면은 전체적으로 매끄럽다. 넓은 면에 쏜 흔적이 남아 있어 고석(敲石)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전체 길이 10.3cm, 너비 6.2~8.7cm, 무게 710.7g

⑬ 석재 (그림 10-⑬, 전주 198)

해안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타원형의 자연석이다. 석질은 각섬암질이다. 단면은 타원형이며 전면이 매끄럽다. 특별한 가공 흔적은 없다. 한쪽 끝단에 쏜 흔적이 남아 있어 고석(敲石)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전체 길이 9.0cm, 지름 4.3~5.1cm, 무게 296.5g

⑭ 미완성 석부 (그림 10-⑭, 전주 197)

장타원형 사암질 자연석의 한쪽 끝을 양면에 대칭으로 마연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미완성 석부로 추정된다. 반대쪽 끝에서 2.5cm 가량 떨어진 곳에 타격흔이 있는데, 나무 손잡이와 결구하기 위한 홈으로 추정된다. 단면은 타원형이다.

전체 길이 8.5cm, 최대 두께 5.0cm, 무게 214.4g

⑮ 석재 (그림 10-⑮, 전주 199)

부정형의 현무암 석재로 한 면을 타격하여 떼어내고 편평하게 가공한 흔적은 있으나 용도 불명이다.

전체 길이 10.4cm, 최대 너비 6.8cm, 두께 5.0cm, 무게 447.1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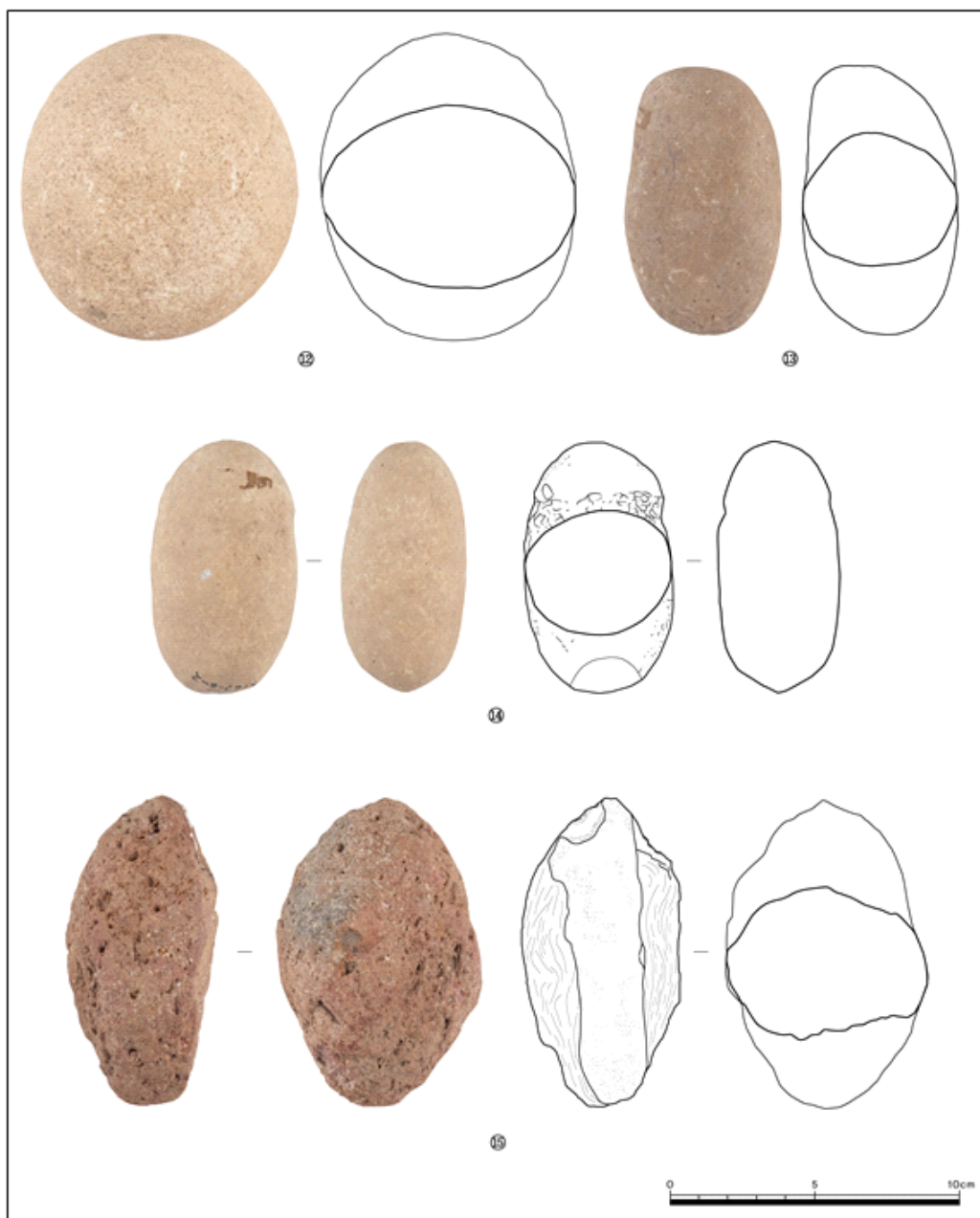


그림 10. 부안 계화도 유적 출토 석기 3

⑬ 박편인기(剝片刃器) (그림 11-⑬, 전주 521)

규장석암에서 떼어낸 박편을 이용하여 날을 세운 박편인기이다. 단면은 마름모꼴을 이룬다. 중간이 절단된 것을 접합하여 복원하였다.

길이 9.8cm, 최대 너비 4.7cm, 무게 40.23g

⑰ 박편인기 (그림 11-⑰, 전주 200)

석영암편을 삼각형으로 얇게 떼어 제작한 박편인기이다. 전면에 타격흔이 관찰된다. 한쪽 변에만 예리한 날을 세웠으며, 나머지 두 변에는 날을 세우지 않았다.

길이 3.5cm, 최대 두께 1.1cm, 무게 13.71g

⑱ 박편인기 (그림 11-⑱, 전주 520)

황반암에서 떼어낸 박편을 이용하여 날을 세운 박편인기이다. 단면은 삼각형을 이룬다.

길이 9.8cm, 최대 너비 8.0cm, 최대 두께 0.9cm, 무게 59.17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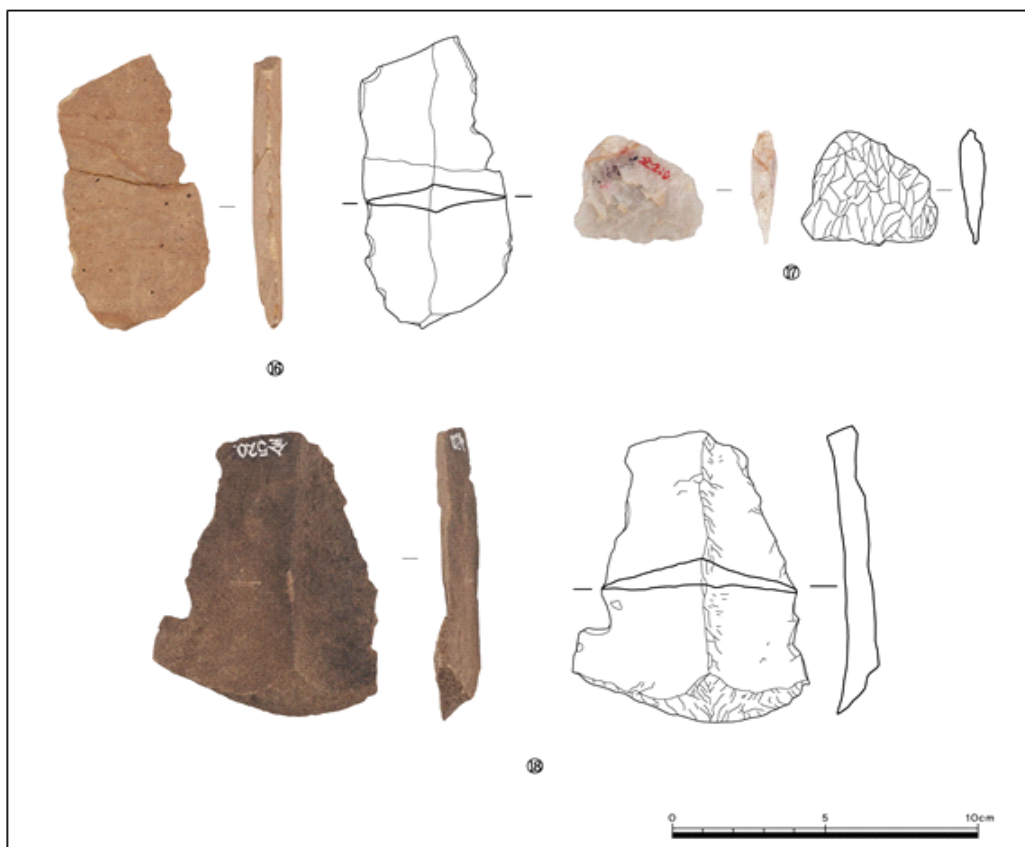


그림 11. 부안 계화도 유적 출토 석기 4

위와 같이 계화도 유적 출토 석기들을 관찰해 본 결과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제석부류로 분류될 수 있는 국부마제석부, 옥부, 전면마연 장방형석부의 날은 대부분 깨져 흠이 있다. 즉 매끄럽게 마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하다. 오직 한 점의 옥부(그림 8-④)만이 인부가 매끄러운 상태이다. 석부의 인부에서 보이는 흔적은 일반적으로 사용흔으로 생각되지만 유적의 폐기 과정에서 형성된 것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추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용흔의 존재 여부가 밝혀진다면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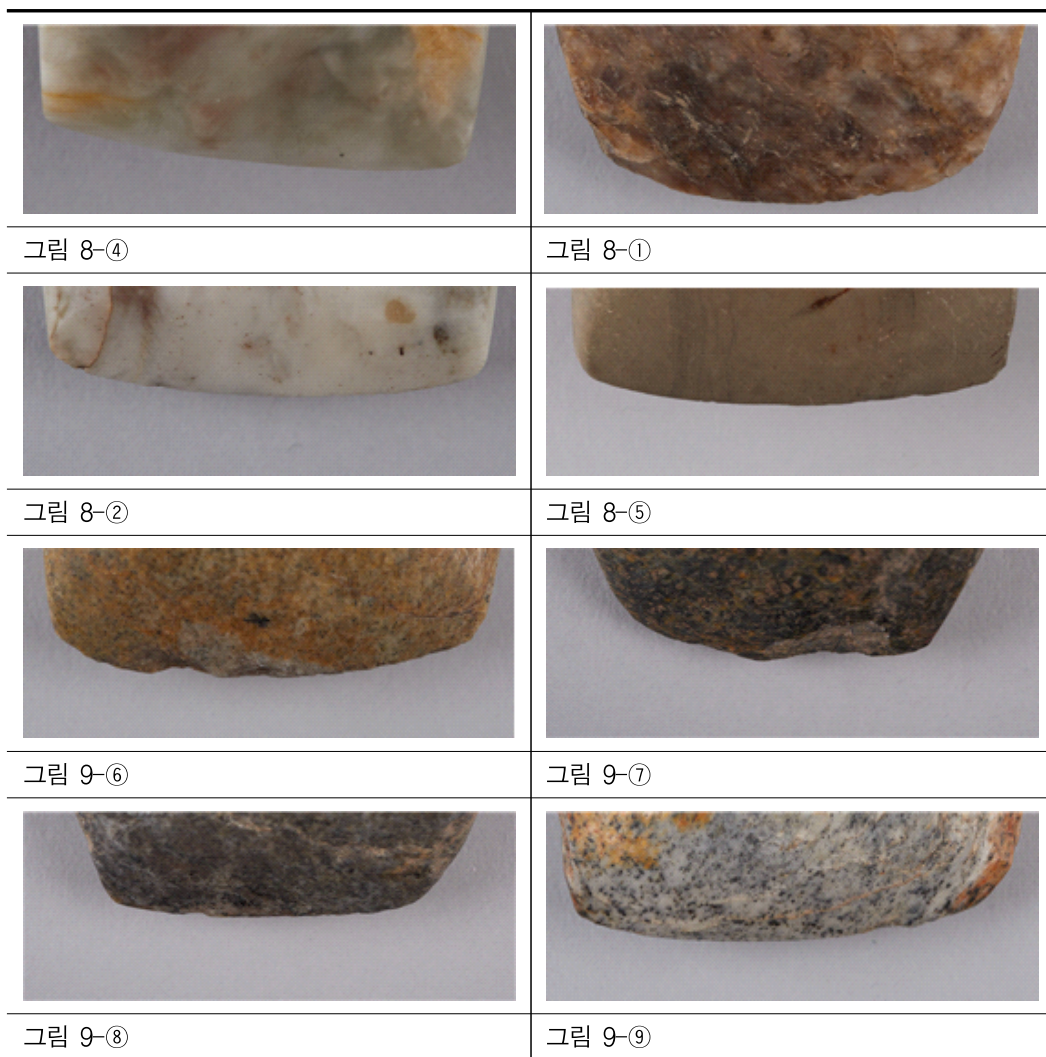


사진 10. 마제석부류 인부 확대 사진

한편 미완성의 비상옥기도 주목된다. 비상옥기는 유선형수식(流線型垂飾)으로 불리는 옥제 장신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울진 후포리 유적에서 확인되었다. 후포리 출토 비상옥기는 길이가 10cm 가량으로 구두 주걱 형태에 몸체가 약간 만곡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두부에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러나 계화도 출토 비상옥기는 그 형태가 유선형을 띠고 있지만 크기가 5cm로 소형이다. 또한 후포리 출토품이 전면 을 정밀하게 마연한 반면 계화도 출토품은 두부에 마연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미완성품으로 추정된다. 춘천 교동 동굴유적에서도 구멍이 관통하지 않는 관옥이 출토된 예가 있다. 이는 비록 미완성품이라도 옥을 귀중하게 여겼던 결과로 사료된다.

V. 유적 성격에 대한 재검토

계화도 산상유적이 처음 학계에 알려질 당시만 해도 전북 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몇몇 유적을 제외하고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또한 유적에서 확인된 영선동식토기는 서해안에서 최초로 확인된 것으로 이 지역과 남해안 신석기문화와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았다. 또한 옥부 등 석기 역시 당시에는 흔히 확인될 수 없었던 자료였다. 당시 보고자는 유적이 다른 신석기시대 유적과는 달리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나, 이미 훼손된 채 유물만 수습되어 유적의 성격이 생활유적인지 종교적 유적인지 불명확한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당시 고고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출토 유물 계통상 연해주-함북-부산-전북으로 이어지는 문화전파 양상을 설명하였다(전영래 1979).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유적은 해안이나 구릉 사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유적은 해안가 산 정상에 위치하여 다른 유적과는 구별된다. 보고자도 언급했듯이 유물 수습 당시 유적이 이미 훼손된 상태여서 그 성격을 명확히 밝힐 수는 없다. 하지만 수가 많지는 않지만 계화도 이외에도 산 정상 혹은 산마루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이 계속 확인되고 있어 그 성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산 정상 혹은 산마루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부산 다대동·용호동, 인천 시도·영종도 논들, 울진 후포리 등이 있다. 부산 다대동 유적과 용호동 유적은 계화도 산상유적과 입지 및 출토 유물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하인수 1990). 다대동 유적과 용호동 유적 모두 바다를 조망하는 산 정상 평탄면(해발

230m 내외) 혹은 능선 상(해발 70m 내외)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두 유적 모두 공사 중 우연히 확인되어 유물이 수습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물 구성에 있어서도 석부와 지석 등으로 이루어져 계화도 산상유적과 매우 유사하다. 보고자는 유적의 입지나 유물의 구성과 출토 상황에 비추어 이 유적들을 분묘유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 11. 하늘에서 본 다대동 유적



사진 12. 하늘에서 본 옹호동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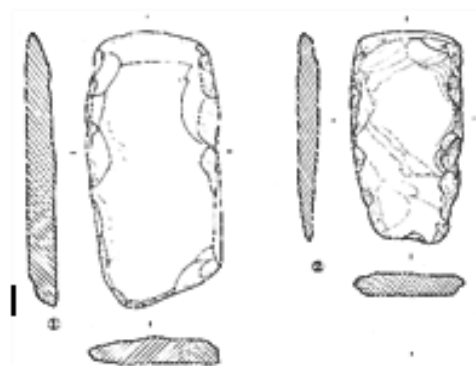


그림 12. 다대동 유적 출토 석기(축적 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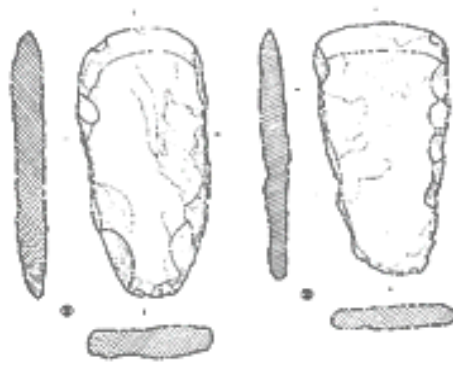


그림 13. 옹호동 유적 출토 석기(축척 부동)

인천 시도에는 신석기시대 무덤으로 보고된 적석시설이 있다(한병삼 1970). 시도 가장 북쪽 구릉의 평탄면에 위치한 적석시설에 대해 보고자는 움을 파고 시신을 매장한 후 나무를 걸쳐 놓고 돌을 쌓아 매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출토 유물은 소량의 빗살무늬토기편이다. 이 적석시설에 대해 김원룡(1986)은 암사동의 야외노지와 비교하여 이를 야외노지로 보았으며,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홍은경 2011; 소상영 2015). 반면 임학중(2008)은 신석기시대의 매장유구를 첫째 생활공간과 공존하는 경우, 둘째 생활구역과 공존하지만 분명한 구획개념이 있는 경우, 셋

째 특별한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경우로 분류하고, 시도의 적석시설을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매장유구로 보았다. 그러나 소상영의 지적(2015)처럼 주거공간과 분리되어 있는 적석시설이 여러 유적에서 확인되는 등 매장유구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일반적인 신석기시대의 야외노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진 13. 하늘에서 바라본 시도 유적



그림 14. 시도 유적 위치도



사진 14. 발굴조사 모습



사진 15. 노출된 적석시설

시도의 적석시설과 유사한 유적으로 인근의 영종도 능들 유적이 있다(임효재·양성혁 1999). 능들 유적은 영종도 남서지역의 나지막한 구릉 능선 상 평탄면에 위치한다. 이 구릉들은 해발 40~60m 정도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능들 유적에는 한 변의 길이가 12.5m 가량의 ‘回’자형 방형구가 확인되었다. 방형구 중심에는 시도의 적석시설과 유사한 지름 2m 가량의 원형 적석시설이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빗살무늬토기편 뿐으로 방형구 내부 및 적석시설 틈에서 확인되었다. 방형구와 야외노지의 결합이라는 형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보고자는 바다를 조망하는 해안 구릉 능선 상 평탄면에 유구가 조성된 점과 유구의 배치 관계 등을 근거로 신석기시대의 제의시설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사진 16. 하늘에서 바라본 영종도 느들 유적



그림 15. 영종도 느들 유적 위치도



사진 17. '回'자형 방형구 노출 모습



사진 18. '回'자형 방형구 내 적석시설

울진 후포리 유적은 신석기시대 집단세굴장으로 널리 알려진 유적이다(국립경주 박물관 1991). 유적은 동해로 돌출된 해안 구릉인 등대산(해발 45m) 정상 평탄면에 위치한다. 산 정상부 동서 4.5m, 남북 3.5m 가량의 자연구덩이에 최소한 40구 이상의 시신이 확인된 집단무덤이다. 인골 주변으로 전면 마연한 장대형석부, 옥부, 비상옥기, 관옥 등이 다량으로 확인되었으며, 토기는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다. 특히 장대형석부는 인골을 덮고 있는 형태로 출토되었다. 유적의 입지, 집단세굴장의 무덤 형태, 부장용 석기 등에 있어 신석기시대 의례행위의 주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19. 하늘에서 바라본 후포리 유적



사진 20. 유물 노출 모습

이상에서 보듯이 현재 신석기시대 산상유적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해안가 구릉 정상 혹은 능선의 평탄면에 조성되어 있다. 또한 시도와 영종도 능들 유적에서는 석기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유적에서는 마제석부, 지석 등 석기 중심으로 출토되고 있다. 특히 계화도와 후포리에서는 석기 표면을 정밀하게 마연한 장방형석부, 옥부, 비상옥기 등 비실용적인 석기가 출토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유물, 즉 토기가 확인된 유적은 계화도, 영종도 능들 뿐이어서⁴⁾ 유적의 조성 시기 판단이 쉽지는 않다. 다만 부산 다대동과 용호동의 경우 보고자는 석기 제작방식이나 유적의 입지 등을 고려하여 후기로 판단하고 있다(하인수 1990). 그러나 석기 제작방식이 남부지역 전기의 석부와 큰 차이가 없고, 석기 구성에 있어 계화도 출토 양상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후기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울진 후포리의 경우 보고자는 장대형석부를 근거로 후기로 판단하였으나(국립경주박물관 1991), 최근에는 춘천 교동 동굴유적 출토 장대형석부를 오산리식토기문화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 후포리 유적 조성시기를 초기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김은영 2007; 임상택 2012; 복천박물관 2013; 박성근 2013).⁵⁾

4) 시도의 적석시설에서 확인된 빗살무늬토기편은 마모가 심해 무늬 형태를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다만 구연부에 손톱무늬[爪文]가 새겨진 토기편 1점이 확인되어 구분계토기 중심의 인근 시도Ⅱ지구 패총유적과 비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Ⅱ지구 패총유적과 동시기일 경우 전기로 소급될 가능성도 있다(소상영 2015).

5) 이와 관련하여 임승경(2012)은 후포리 유적의 장대형석부 및 옥기는 범방 유적의 석부 및 옥기와 마찬가지로 무덤 조성 시 행해진 의례행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출토된 옥 장신구류는 자체 제작보다는 주변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았다. 그 조성 시기도 초기-전기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신석기시대 산상유적 현황

유적명	입지	해발	유구	출토 유물	유적성격	형성시기
부산 계화도	산 정상	246m	미상	영선동식토기, 옥부, 마제석부, 지석 등	제사	전기
부산 다대동	산 정상	230m	미상	마제석부, 찰절석기, 지석 등	분묘?	후기?
부산 용호동	산 능선	70~80m	미상	마제석부, 석착, 지석 등	분묘?	후기?
인천 시도	산 정상	70m	적석시설	빗살무늬토기	제사	후기?
인천 영종도 눈들	산 능선	42m	방형구, 적석시설	빗살무늬토기	제사	후기
울진 후포리	산 정상	45m	수혈	장대형석부, 옥부, 관옥 등	분묘	조기

유적의 성격에 대해서는 대체로 매장시설 혹은 제의시설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⁶⁾ 그러나 인골이 나온 후포리를 제외하고는 확실히 매장시설로 볼 만한 근거가 미약하다. 현재까지 알려진 신석기시대 무덤 양상은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양성혁 2011). 이는 신석기시대 집단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신석기시대에는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고 각 집단은 일종의 죽은 이를 기리는 행위인 무덤 조성에 있어 자신들만의 형태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산상유적이 매장시설일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매장시설로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계화도 산상유적 성격 규명에 있어 주목되는 것은 옥부와 전면마연 장방형석부의 존재이다. 옥부는 그 형태가 석부와 같지만 소재의 종류와 크기에서 차이가 있다. 옥부는 일반적인 석부의 소재와 달리 옥질의 석재를 정밀 마연하여 표면이 옥과 같은 광택을 띤다. 크기도 3~5cm 정도로 작다. 소형이라는 점에서 실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의례용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계화도를 비롯해 황해도 궁산, 인천 영종도 중산동, 남북동, 삼목도, 고성 문암리, 양양 오산리, 울진 후포리, 진안 갈머리 등에서 출토되었다(복천박물관 2013).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옥부를 장식적인 의미와 더불어 제사의식이나 신분적 의미를 상징하는 유물로 평가하고

6) 계화도의 경우 보고자는 생활유적인지 종교적 유적인지 그 성격이 불분명하다고는 하였으나, 유적의 입지조건이 인근 죽막동 유적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제사유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국립전주박물관 1999; 동삼동패총전시관 2004).

있다. 일본의 경우 특히 제단에서 보이는 유적에서 출토되는 경향이 있다(임승경 2013). 중국과 일본의 예로 유추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옥기 역시 실용 이라기보다는 의례용일 가능성이 높다. 전면마연 장방형석부의 경우 대체로 날 부분만 마연하여 사용하는 일반적인 석부와는 달리 옥부와 마찬가지로 옥질의 석재를 정밀 마연한 것이다. 옥부가 소형인 반면 일반적인 석부의 크기와 같다. 계화도를 비롯해 고성 문암리, 울진 후포리 등지에서 확인되었다. 문암리 유적의 석부는 결상이식과 함께 움무덤 내부에서 확인되었으며, 후포리 유적의 석부는 인골 주변에서 장대형석부를 비롯해 옥부, 관옥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즉 매장유구 내에서 옥기류와 함께 부장되고 있다. 계화도 산상유적에서도 옥부와 전면마연 장방형석부가 공반한다. 이를 근거로 계화도 산상유적을 분묘유구로 추정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옥기류를 가지고 장송의례를 포함한 다양한 의례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을 정리한다면 계화도 산상유적은 ① 해안가 산 정상 혹은 능선의 평탄면에 조성되는 입지 조건, ② 옥부와 장방형 석부 등 의례용기 출토, ③ 석부 중심의 유물 조합 등을 고려할 때 의례행위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VI. 맺음말

부안 계화도 산상유적은 신석기시대 연구에 있어서 그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근래에 들어 계화도 유적과 같이 해안 인근의 얇은 구릉 정상부에서 신석기시대 유적들의 조사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유적들은 옥부 등 실용기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석기들과 석부 중심의 유물들이 출토되는 것이 특징이다. 인천 시도, 영종도 눈들, 부산 용호동, 다대동 등이 대표적인데 계화도 유적도 이 유적들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유적들은 분묘 등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격을 규명하기에는 현재 무리가 있다. 향후에 더 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례와 관련된 시설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본다. 다행히 이러한 재보고를 통해 계화도 유적에 대한 정보를 연구자들에게 새롭게 소개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글은 선학의 노력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 한계로 인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계화도 산상유적과 그 유물에 대해 현 시점에서 재검토하여 그 중요성을 밝히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참고문헌

- 국립경주박물관, 1991, 『울진 후포리유적』, 국립경주박물관.
- 국립전주박물관, 1999, 『부안 해안일대 유적지표조사 보고』, 국립전주박물관.
- 국토지리정보원, 2010, 『한국지명유래집(전라·제주편)』, 진한엠앤비.
- 김원룡, 1973, 「신석기문화: 각지방의 토기·석기·골각기」, 『한국사』 I,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1986, 『한국고고학개설』 제3판, 일지사.
- 김은영, 2007, 「고성 문암리유적을 통해 본 신석기시대 평저토기문화의 전개」, 『문화재』 40,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장석·양성혁, 2001, 「중서부 신석기시대 편년과 패총 이용전략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고고학보』 45, 한국고고학회.
- 동삼동패총전시관, 2004, 『신석기시대의 토기문화』, 동삼동패총전시관 학술총서 I.
- 박성근, 2013, 「후포리유적 재검토」, 『남한지역의 신석기유적 재조명』, 2013년 한국신석기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한국신석기학회.
- 북천박물관, 2013, 『선사·고대 옥의 세계』 특별전 도록, 북천박물관.
- 소상영, 2015, 「시도패총의 재검토」, 『우행 이상길 교수 추모논문집』, 진인진.
- 송은숙, 1998, 「호남 내륙지역 신석기문화에 대한 고찰」, 『호남고고학보』 7, 호남고고학회.
- 양성혁, 2011, 「매장과 의례」, 『한국 신석기문화 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3, 서경문화사.
- 이상균, 1998, 「호남지역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대외교류」, 『호남고고학보』 7, 호남고고학회.
- 이영덕, 2011, 「중서부 해안지역의 어로 양상과 동인」, 『한국신석기연구』 25, 한국신석기학회.
- 이재언, 2017, 『한국의 섬: 전라북도』, 지리와 역사.
- 임상택, 1998, 「패총유적의 성격」, 『과기고고연구』 3, 아주대학교박물관.
- _____, 2012, 「동·남해안 지역의 신석기시대 초기 토기 양식」, 『한국신석기연구』 24, 한국신석기학회.
- 임승경, 2012, 「울산 처용리 출토 결상이식에 대한 고찰」, 『울산 처용리 21번지 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 _____, 2013, 「중국 동북지역 신석기시대 옥문화」, 『한국 선사·고대의 옥문화 연구』,

- 북천박물관 학술연구총서 28, 북천박물관.
- 임학중, 2008, 「신석기시대의 무덤」, 『한국신석기연구』 15, 한국신석기학회.
- 임효재·양성혁, 1999, 『영종도 논들 신석기유적』,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전영래, 1979, 「부안 계화도 산상유적 신석기시대 유물」, 『전북유적조사보고』 10, 전주시립박물관.
- 천선행·정다운, 2017, 「호남지역 신석기시대 유적 동태와 의미」, 『한국상고사학보』 96, 한국상고사학회.
- 최몽룡, 1967, 「전라북도해안일대의 선사유적(2)」, 『고고미술』 110, 한국미술사학회.
- _____, 1972, 「대항리패총」 『고고미술』 115, 한국미술사학회.
- 하인수, 1990, 「부산 다대동 용호동 출토 석기류」, 『부산시립박물관 연보』 13, 부산시립박물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디지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 한병삼, 1970, 『시도패총』,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8책, 국립박물관.
- 홍은경, 2011, 「신석기시대 집석유구의 기능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고고학보』 81, 한국고고학회.

[항공사진 출처] Google Earth Pro

【Abstract】

Re-examining the Mountain Based Site of Gyehwa-do, Buan

Yang Song-hyok & Kim Wang-kook*

The site of Gyehwa-do, Buan, was first made known to the archaeological community by the late Jeon Yeong-rae. It is distinctively located at the summit of a mountain, presenting a contrast to other typical Neolithic sites. Yeongseondong-type pottery, which is the representative pottery type of the Early Neolithic of the southern coastal regions, was recovered at this site, representing the first discovery this pottery type in the western coastal region. The jade axe and rectangular axe polished on all sides are also rare finds for the time. Due to lack of archaeological knowledge at the time that the site first came to be known to the wider archaeological community, there is need to re-examine the mountain based site of Gyehwa-do and its artifacts. This paper represents an up-to-date report of the site, based on the re-survey of the site and the re-drawing of the artifacts.

The site had already been destroyed at the time of its discovery, making it difficult to obtain detailed information on its archaeological features. A re-survey of the site made it possible to establish that Joseon period beacon facilities had been constructed at the summit of Mount Gyehwa, where the Neolithic site had been located. The surrounding area was densely covered with stones and grasses, making it difficult to find any traces of archaeological remains.

The pottery from the mountain based site of Gyehwa-do is of the Yeongseondong-type, which is attributed to the Early Neolithic of the southern coastal regions. The lithic assemblage consists of stone axes; of particular interest are the finely polished rectangular axe and jade axe. Given that these axes would not have served a practical function, their presence provides important information on the nature of this site. Other examples of Neolithic sites situated at mountainous locations (on summits or relatively flat locations along ridges), and their associated artifacts were examined. These sites are as follow: Dadae-dong and Yongho-dong (Busan), Shi-do and Yeongjong-do Neundeul (Incheon), Hupo-ri (Uljin). It is proposed that it is highly likely these sites, along with the mountain based site of Gyehwa-do, were associated with Neolithic ritual activities.

Key words : Gyehwa-do, mountain based site, rectangular axe polished on all sides,
ritual activities

* Jeonju National Museum